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185 색명과 문장학 그리고 언어

‘나는 여전히 파랗다’=프랑스서 ‘놀라서 어안이 벙벙’

트레인 블루(train blue)는 칼레~파리~니스 구간을 달리는 기차로 침대칸만 있다.

트루 블루(true blue)는 주장이 강한 의지의 소유자, 충실 또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 영어에서 파란색은 정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정절’의 의미로 사용되는 색과 감정이 하나로 녹아든 예이다.

파란 개미는 중국 노동자들을 말한다. 옛날 중국에서는 인디고를 재배했으며, 남녀 모두가 파란 재킷과 바지를 입고 일을 했기 때문이다.

파란 곰은 늘 허황된 꿈만 늘어놓는 선장이다.

파란 깃발은 평화와 평화로운 단합을 상징하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유엔기는 파란색 바탕 위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 2개가 세계지도를 감싸고 있다.

파란 러시아 남자는 남성 동성애자이다.

파란 베레모는 평화군을 뜻하며, 실제로 파란 모자를 쓴다.

파란 사람은 독일에서 술 취한 사람이다.

파란 성격의 사람은 러시아에서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한다.

파란 여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미혼모, 다시 말해서 ‘타락한 여인’을 말한다. 괴테가 일상적인 의복의 색으로 파란색을 ‘천박한 색’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파란 연필은 영국에서 검열을 상징한다.

파란 청년은 해병을 가리킨다.

파란 편지는 진급하지 못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학교에서 그런 소식을 전할 때 파란색 편지 봉투에 넣어 보냈기 때문이다. ‘파란 편지’는 해고 통지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파우다 블루(powder blue)는 1707년경부터 사용되었다. 이것은 프랑스어의 고어인 파우다 블루로, 그 의미는 블루 파우다이다. 코발트(cobalt) 안료를 넣어 만든 특수한 유리로, 이 색은 연한 흰빛을 띤 파란색이다.

파일럿 블루(Pilot blue)는 공군의 군복 색깔이다.

프랑스어로 ‘나는 여전히 파랗다(j’ en reste bleu)’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다는 뜻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나타날 때도 ‘전형적인 파랑!(Parbleu!)이라고 외친다.

피코크 블루(peacock blue)는 공작새의 여러 가지 날개 색 중에서 독특한 파란색을 말하고, 기품과 멋이 있는 아름다운 색으로 애용되고 있다.

필 블루(feel blue)는 우울하다 또는 기분이 답답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필링 블루(feeling blue)는 색채학자인 비렌(Birren)에 의하면 기분이 우울하다는 뜻이다.

하늘색 러시아의 여자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여자를 말한다.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이름이 그린(녹색)이지만, 깃발은 파란색이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빈곤 포르노와 미담 사이

취재수첩

도선인
사회부 기자
sunin.do@jnilbo.co

복지기관을 출입하다보니 주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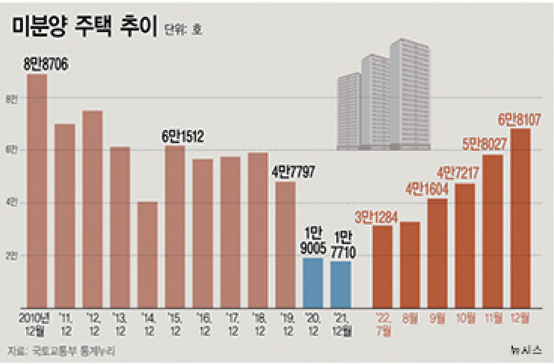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을 기계적으로 쓰게 되는 것 같다. 그럴때마다 빈곤 포르노에 그치는 콘텐츠를 양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이도 썼다. 집 화장실이 더러워 용변을 참는 아이들, 38도에 육박한 집에서 선풍기를 틀고 생활하는 할머니, 연탄이 없어 구공탄을 사다 때우는 노인 등.

올 겨울에도 당연히 썼다. 몸이 아픈 홀어머니와 살면서 태권도 선수가 꿈이라는 소년, 꽁꽁 언 골방에 텐트 치고 생활하는 70대 노인, 긴급 보수가 필요한 낡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빈곤하게 사는 모습들을 기사화하는 것은 누구의 이득일까?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하면 오늘 하루 지면을 채운 기자가 이득일 수도 있겠다 싶다. 허나 세상은 그리 각박하지 않다. 가난한 이들의 기사가 그저 활자로만 생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대훈 선수를 꿈꾸는 가난한 중학생 소년의 전남일보 기사를 보고 이대훈 선수 측에서 돕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 (기사화를 고민했지만, 선행이 알려지는 것이 싫다는 이대훈 선수 측의 바람으로 기사는 쓰지 않았다.)

또 광주 북구 풍향동에 사는 난방 빈곤층 70대 독거노인의 기사를 보고 북구청 주거통합돌봄과 희망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다. 사례자를 연결해주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었다.

빈곤 포르노와 미담기사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풀어내기 정말 어렵다. 실제로 시민단체 중에서는 이런 기사를 두고 ‘빈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자극적인 묘사를 통해 인권을 무시하는 언론의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최소한의 장치는 언론이 아닐까. 신상정보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고 사례자가 현재 처한 단편적인 상황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을 짚는 언론이라면, 충분히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소년이 자신이 꿈에 그리던 영웅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사진으로 보는 세상

30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텍사스에서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의 구타로 숨진 타이어 니컬스를 추모하는 시위대가 시카고 루프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 시카고=AP/뉴시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전 관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쇼파석 (커플석보유)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스푼더마켓 충장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무료
- 운영시간 :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09:00~오후20:30까지
※3시간 무료 주차이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드롭탑&파파이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파레스·동아·신동아 주차장에 한함)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1관	교섭 / 유령
2관	바빌론 / 교섭
3관	아바타:물의 길
4관	상견니 / 돌핀보이
5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영웅 / 메간
7관	바빌론 /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영웅 / 메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